

피해지역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각지를 격려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들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오사카볼ランティア협회

에부치 케이코(江部 桂子)씨

후쿠시마에는 처음으로 왔습니다만, 눈으로 마치 화장한 처럼 이쁘게 덮임 산들과 만개의 벚꽃이 줄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봐서 한눈에 빠졌습니다.
저희 오사카 볼ランティア협회는 오사카시 후쿠시마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같은 후쿠시마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끼리 좋은 인연이 오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 볼ランティア코디네이터 협회

고토 마리코(後藤 麻理子)씨

자기 집안 일때문에 남한테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귀찮다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힘만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려고 하지마십시오. 저희들한테 뭔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저희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볼ランティア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볼ランティア 활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생활 재건과

지역부흥으로 연결할 수 있게 전개 해야 합니다.

사고나 문제는 서로의 마음과 몸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의 <실수사례>를 소개하며, 활동상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작업중 발바닥에 못이 박혔다!

예를 들어서 가옥내에서의 작업이라도 물에 잠긴 바닥은 부드럽고 밟아서 구멍을 뚫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마루 밑에는 많은 유리의 파편이나 구부러진 못등이 흩어져 있습니다.날씨가 따뜻해지면 점차로 복장이 가벼운 복장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못이 박혀서 다친 볼ランティア도 있습니다. 물웅덩이나 흙탕물에는 많은 잡균이 포함되어 있으니, 작업하러 갈때 장비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2 활동자가 안돌아온다?!

재해볼ランティア센터에서 소개받고 활동처로 가는 볼ランティア가 저벽이 되는데 안돌아온다, 핸드폰도 안받는다, 뭔가 사고라도 당했나? 밤이 되서 겨우 연락이 되면 [작업시간이 연장되서 직접 숙소로 돌아갔다. 목욕하다가 핸드폰 못받았어요]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센터직원들은 모두 안심했습니다만 다시 활동종료시에 연락을 철저해 주십시오.



사례 3 사생활을 깜빡...

피난소를 방문했을때 쓰나미로 인해 자택과 친족을 잃으신 분의 말씀을 들어서 감정이 고양되었다. 피난소에 있는 흡연소에서 볼ランティア 친구들과 무심코 큰소리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피난하신 그 분께서「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마!」라고 주의를 받았습시다. 사생활이 유출하기 쉬운 피난소야말로 볼ランティア가 지켜야 할 매너를 자각해주십시오.



사례 4 함부로 찰칵

모처럼 볼ランティア로 왔는데 사진이라고 찍고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무너진 가옥이나 와륙의 산을 사진을 찰칵. 문득, 가까이 서 있었던 지역사람이 슬프게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깨진 벽에도, 모습을 잃어버린 거리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진촬영은 상가합니다.필요 최소한 사진촬영에도 꼭 허락을 받도록 합시다.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의 철저를

활동중은 반드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옥외·옥내에 관계 없이, 흙탕물, 정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분진이나 먼지등을 빨아 들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방진 마스크>를 장착하고, 유해물질을 빨아 들이는 것을 최소한에 막도록 각자에서 철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장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 내용에 따라서는 고글의 착용도 필요합니다.

깨진 건조물이나 표류물로 비산하는 분진중에는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됩니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특히 대책을 철저해 주십시오.



대피소에 계신 분들께

「가설주택에서의 살림은?」

◎가설주택이란?

가설주택(정식으로는 응급가설주택)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거를 잃게 되는 분들한테 재해구조법을 근거로 행정체가 대여하는 가설 주거 입니다. 대여기간은 원칙 2년간입니다.후쿠시마현에서는 약1만4000호가 필요로 되고 있어, 7월말까지의 공급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읍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4월 상순 부터 입주자의 모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조리기구?

가설주택에는 표준설비로서 「에어컨」 「형광등류」 「LP 가스 풍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더해서, 이번의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있어서는, 가설 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의 생활 지원의 일환으로서 일본 적십자사에서 가전 6점 세트가 기증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재해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후쿠시마현내에서는, 4월21일에 이와키시에서 처음으로 기증되었습니다.

이 외로, 시읍면에 따라 조리기구나 식료품등의 기증이 행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치마치에서는 4월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만, 「냄비」 「후라이팬」 「체스트(chest)(선반)」 「이부자리」 「식료(쌀, 된장, 간장, 야채, 컵라면등)」등도 제공되는 것입니다. 시에게 구원 물자로서 모인 것을 창고에 잠들 해 두는 것이 아니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할 생각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1.4.24)

생활가전 세트

- ①세탁기
- ②냉장고
- ③텔레비전
- ④밥솥
- ⑤전자레인지
- ⑥전기 포트

가설주택 외관
(신치마치)



가설주택내부
(고오리마치)

편집 후기

후쿠시마현내에서, 또한 각 지역에서 후쿠시마를 지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간호와 때마침 시작한 홈페이지에서도 후쿠시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꼭 봐주시며 계속해서 응원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카와라)

힘내자, 일본.
힘내자, 동북.

힘내자, 후쿠시마.

최신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pref-f-svc.org>

